



지난 14일 열린 광복 제66주년 기념예배에서 전영섭 목사(대진감리교회)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다.

# “오대산 사고본 강원도로”

고성문화원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동참

## 고성문화 집 앞에서 서명대 비치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약탈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를 강원도로 되찾아오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가운데, 고성문화원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고성문화원은 지난주부터 고성

문화의 집에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서명대를 비치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은 이미 지난 2006년 국내로 반환됐으나 현재까지 연구 명목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돼 있으며, 왕실의궤는 반환 협상이 완료

돼 올해내로 반환될 예정이다.

고성문화원 박명재 사무국장은 “잃어버린 강원도의 보물을 제자리인 오대산에 보관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자는 게 도내 문화인들의 뜻”이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서명부가 별도로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는 연락을 주면 보내드리겠습니다”고 했다. <문의 : 681-2922>

최광호 기자

# “비정규직 권익신장 노력”

고성교육지원청 ‘2011년 고성지역 비정규직 연수’ 실시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 12일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직원 95명을 대상으로 ‘2011년 고성지역 비정규직 연수’를 실시했다. 비정규직 연수는 고성교육지원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고용노동연수원 이공희 교수와 도교육청 최석민 장학사, 용화초등학교 조미숙 행정실장 등 3명의 강사가 나와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어승호 행정지원과장은 “고성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연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



지난 12일 열린 2011년 고성지역 비정규직 연수 모습.

음”이라며 “앞으로 비정규직 직원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681-2922>

최광호 기자

#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자”

고성지역 기독교인들 광복 66주년 기념예배

고성군 기독교연합회(회장 최진묵 목사)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 거진중앙장로교회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15 광복 제66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용완 고성경찰서장, 함형완 고성군의회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전영섭 목사(대진감리교회)는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으니

정치가나 외교관에게만 돌을 던지지 말고, 고성지역 성도 모두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로 나아가자”고 했다.

이날 광복절 기념예배는 남북교류의 중단과 6자의 각축에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시도 및 동해 도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해진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사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공순 시민기자

##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20]

### 독립운동가 김 동 원(金東元) 당시22세 1898년 ~ ?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신북면(新北面) 계월리(桂月里) 출신이다.

1919년 3월1일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동년 3월 초순 고성읍내에서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선언서」 1통을 입수한 선생은 3월 13일 밤 고성면사무소의 등사관을 가지고와 자기 집에서 첫 머리에 ‘고성재판’이라는 제목을 붙인 독립선언서 50매를 등사한 후 그 다음날

14일 고성을 밖에서부터 간성가도, 지경리까지 게시판에 붙이거나 노상에 뿌려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고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체포된 선생은 1919년 4월 30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동년 6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과 선언서 반포, 출판물 위반 등의 죄명을 뒤집어 씌워 10월의 징역

형이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典: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第2卷, p.514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자료집)』第5卷, p.972  
『고성군지(高城郡誌)』고성군, 1998, 보정판, p.139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

## 고성교육지원청 영재캠프 운영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로)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초계학생수련장에서 관내 초등영재교육생 40명과 지도교사 12명, 학부모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재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영재탐구 10종 경기’ 운영으로 좋은 호응을 얻었다.

최광호 기자